

군산의 영화사 어제와 오늘

국도·코아·아카데미·허리우드·명화극장 등 과거속으로
 현재는 롯데시네마 5개관, CGV 7개관 등에 편의시설

군산지역의 영화문화가 수년전부터 시민들의 여가생활로 자리잡아가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과거 군산에는 국도극장을 비롯해 군산극장, 코아극장, 아카데미 극장, 허리우드 극장, 명화극장 등 여러 개의 극장이 있었다.

특히 이들 극장들은 좌석제가 아니고 다른 부대시설들이 거의 없었으며 영화가 끝나도 나가지 않고 2~3번 영화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일부 극장에서는 영화 한편만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두 편을 한꺼번에 상영해주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

옛날 중앙로에 위치한 국도극장은 주말 관람객이 5천여 명에 달하는 극장이었으나 나운동에 메가라인7과 롯데시네마와 같은 복합영화관이 들어서게 되면서 주말 관람객 수가 700여명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운영이 어려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문을 닫게 됐으며 그 후 군산극장을 리모델링한 우일시네마가 유일하게 운영됐으나 이마저 관람객이 점점 줄어들면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어 군산에는 메가라인7과 롯데시네마 두 군데만 존재했으나 메가라인7은 부도로 인해 2008년 2월 영업을 중단된 후 같은해 11월 21일 CGV로 이름이 바뀌면서 현재는 CGV와 롯데시네마 2개의 영화관만이 운영되고 있다. CGV는 7개의 관에 1,100석의 좌석이 있으며 내부에는 팝콘과 간식을 먹을 수 있는 부대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롯데시네마는 2006년 4월 27일에 개관했으며 5개의 관에 총 975석의 좌석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군산최초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써 초대형 스크린으로 실감나는 화면과 3.4WAY 디지털 음향시스템으로 생동감 넘치는 영화 관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이 두 영화관은 주말이면 사람이 북적거리고 특히 명절이 되면 예약을 하지 않고는 당일에 영화를 볼 수 없을 만큼 인기가 좋다.

/김예진기자(군산신흥초6)



순국선열·호국영령 추모 군경합동묘지

697개 묘비...매년 현충일날 기념행사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립한 대한민국은 1948년에 남한만 총선을 거쳐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 이후 1950년에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킴으로써 현재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민족은 기록상 931회의 이민족 침입을 견뎌왔고 전투행위로 간주되는 무력충돌은 200여회였으며 전국이 전쟁터였던 횡수는 20여회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힘든 역사를 거쳐 오면서도 대한민국은 세계의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다.

특히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목숨을 받쳐 가면서 나라를 지킨 애국선열들이 있어서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

군산시 나운동에도 이러한 애국선열을 모시는 군경합동묘지가 있다. 이곳에는 한국전쟁 때 희생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충혼탑이 있다.

이 탑에는 국가유공자와 순국선열 애국지사, 상이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옆쪽에는 충혼탑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이 써진 설립비가 세워져 있다.

군경합동묘지는 비교적 잘 정리가 돼 있으며 입구에서 바라볼 때 왼쪽은 가로줄 13개, 세로줄 23개씩 총 297개의 묘비가 있고 오른쪽은 가로에 14개, 세로 29개씩 총 400개의 묘비가 있는 등 모두 697개 묘비가 있다.

하지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군산지역에도 군경묘지가 있다는 것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에조차도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이모(나운동)씨는 “나운동지역에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군경묘지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며 “일반인에게 홍보가 덜 돼 있다”고 말했다.

/김예은기자(전북외고1)



소통예술 살아있는 동국사 골목 갤러리

인상주의부터 근·현대까지 다양한 작품 전시

군산시 금광동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 동국사 입구에는 정말 평범한 골목에 화가의 손길로 재탄생한 새로운 세상이 열려 있다.

알록달록하게 꾸며진 전봇대로 시작되는 이곳 골목 갤러리는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군산시 마을 가꾸기 사업 ‘동국사 가는 길’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은 문화공동체 감, 창작 문화 공간 여인숙 대표 이상훈, 창작 문화 공간 여인숙 큐레이터 서진욱, 창작 문화 공간 여인숙 입주 작가 김용현, 서용인이 함께한 소통의 예술 골목 갤러리 길이다.

여기에는 총 50여점의 작품으로 초기 인상주의 작품부터 근·현대의 작품까지 다양한 명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현 우리나라 미술 교과서에서 많이 거론되는 작품을 선별해 군산 시민들과 지역 청소년들과의 소통의 자리로 확인되는 공간으로, 이곳 ‘동국사 가는 길’은 주민들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창작 문화 공간 여인숙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의 공간이다.

전체를 둘러보는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는 코스이지만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여행 도중 잠시나마 여유를 가지는 것도 좋을 듯 하다.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한가로워서 좋았던, 호화스럽고 사치스럽지 않아 소박함을 느끼게 해 주었던 골목 갤러리,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기에 충분하다.

다양한 색상으로 꾸며진 골목 갤러리는 여느 벽화마을과는 다른 소박한 느낌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동국사에 가는 관광객들은 많은 반면 골목 갤러리는 많지 않았다.

이 길이 최근에 구성된 만큼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코스가 짧은 편이라 아쉬움이 느껴 졌으며 정확한 위치가 적혀 있지 않아서 처음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찾아가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점들을 개선시켜 나간다면 군산지역 또 하나의 관광코스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지애기자(전북외고1)



일제시대 자원수탈 군산역, 이젠 관광객 수송 대명동에서 내홍동 이전, 화물 운송 등 활발

군산의 열차 승객을 나르고 화물운송의 역할을 담당했던 군산역이 대명동 시대를 마감하고 내홍동 시대를 연 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신역사라고 불리는 내홍동 군산역은 지난 2008년 영업을 시작해 전국의 관광객을 군산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명동의 역사 마친 구 군산역

군산시 대명동 138번지에 위치한 군산화물역은 1912년 3월 6일 군산역의 종착역으로 문을 열었다. 수탈의 아픔의 역사를 가진 군산에서, 군산역 역시 우리들에게는 아픈 역사의 유물로 상징화 돼있다.

원래 군산선은 일제의 자원 수탈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일제강점기 시대에 호남 곡창지대에서 수확된 농산물을 일본으로 운반하기 위해 공사를 한 선로가 군산선 이었는데, 배로 실어 나르기 위해 종착역을 군산에 만든 것이다.

군산역은 1912년 영업 개시이후,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 역사가 소실되었고 1960년 현재의 건물인 구 군산역이 세워졌다. 군산의 역사를 간직한 군산역은 2008년 군산역이 내홍동으로 이전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이전 군산역의 군산선 이름 또한 장항선으로 흡수 통합되었으며, 2008년 여객 취급을 중단하면서, 화물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내홍동의 새로운 출발 신 군산역

군산시 내홍동 455번지에 위치한 군산역은 2008년 1월 1일 영업을 시작해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군산역은 장항선에 있는 기차역으로 장항역과 대야역 사이에 있다. 장항~군산간 철도 연결은 금강하구둑을 통해 그동안 장항역에서만 끊겼던 철도를 익산까지 연결함으로써 그동안 군산~익산~전주 구간으로 연결됐던 철도계통이 서울방면으로 바뀌었으며 화물 수송 측면에서도 굳이 서대전역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생겼다.

한편 군산역에는 ‘내홍동 유적전시관’이 있어 군산역의 역사 및 2002년 군산~장항 철도 연결 사업으로 인해 진행된 내홍동 일대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하지만 상시개방이 아니라 역무원에게 문의를 해야만 관람이 가능해 이용을 원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유승연기자(전북외고1)



문화재탐방 노성당과 임피향교

임피에 위치해 있는 노성당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32호로 임피의 선정비들 앞으로 전통 한옥이 두 채 보이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고 하기엔 너무 보존이 잘되어진 그런 한옥이다.

이 노성당은 선비들이 임피고을 수령들의 위패를 모시고 일년에 한차례씩 제사를 모시던 곳이다. 조선 철종6년(1885)에 세웠으며 조선말기에는 임피지역의 행정업무를 보던 지방관청 건물로 사용했다.

현재 노성당은 임피현의 관아 건물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방청으로 더욱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통 경로당과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음력 3월 3일 삼짇날(강남 갔던 제비 오는 날)과 음력 9월 9일 중양절(제비가 강남 돌아가는 날, 햇빛이 잘 드는 날)인 길일에 제사를 두 번 지낸다. 내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에는 중양절을 대비해 제사준비에 한창이신 마을 어르신들을 뵈 수 있었다.

전통 한옥 두 채가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이유는 마을 어르신들의 보살핌 때문이었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 경로당에 노성당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노성당에서 하늘을 보면 노성이라는 별을 관측할 수 있기에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정작 실제로 관측된 적은 별로 없다고 한다.

제사준비가 한창인 노성당을 나와 임피초 옆으로 보이는 채만식도서관 사이로 구불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유교의 성지인 향교가 나온다.

임피향교 정문 들어가기 전 개하마(모두 말에서 내리시오)라고 써있는 개마비 혹은 하마비라고 불리는 검은 화강암 비석을 볼 수 있다.

이 비석을 정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둔 이유는 옛 선인들을 모시는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말에서 내려 들어가는 뜻으로 세워둔 것 같았다.

이곳 대성전은 공자를 모시고 지금은 고인이 된 성현들을 제사하며 기리던 공간이다. 그래서인지 더욱 분위기 경건하고 엄숙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임피를 떠올리면 항상 군산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만 생각했던 고정관념들이 이번 문화재 탐방을 통해 많이 달라졌다.

/조근미기자(군산중앙여고2)



화제의 인물 바게트 과자점 이종길 사장

군산 최초 유산균 효모 발효빵 개발

군산 최초 천연 유산균 효모 발효빵 개발로 대형 프랜차이즈와 당당하게 경쟁하며 탄탄한 내실 경영을 하고 있는 바게트 과자점.

경남동에 위치해 있는 바게트 과자점은 18시간 직접 배양한 유산균 천연 효모 발효빵으로 손님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 곳이다.

특히 바게트 과자점은 하루 70번 이상 빵을 구워내기 때문에 신선하고, 당일 생산한 빵은 당일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단골 손님들이 많다. 또한 바게트 과자점이 인기를 끈 이유는 이종길 사장의 빵에 대한 남다른 노력과 연구 결과도 한몫하고 있다.

이종길 사장은 제빵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35년이나 된 프로다. 지난 1988년 호주빵집이라는 제과점을 시작했을 때 군산에 베이커리라는 개념을 최초로 인식시킨 장본인이다.

현재의 바게트 과자점은 4년 후인 1992년부터 시작했으며 천연유산균 발효빵을 만들게 된 계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밀가루 음식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소화가 안됐다고 한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봤더니 화학첨가제 때문이었다.

그 계기로 그는 유산균을 이용한 빵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 모든 빵에 유산균을 첨가해 빵을 만들고 있다.

이종길 사장은 “유산균 빵은 온도와 시간, 중균이 중요하다”며 “빵은 원래 18시간부터 12시간 안에 발효해야 하는데, 이때 온도는 38도가 딱 맞으며 유산균은 10~30% 정도를 넣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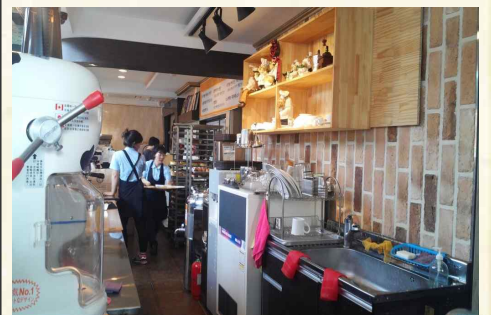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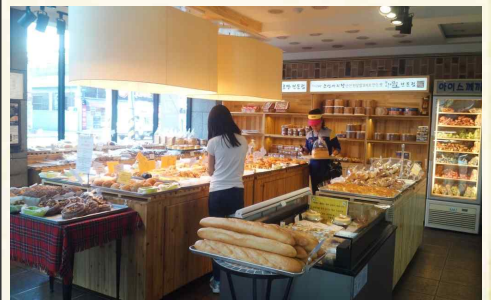
이어 “지금은 많은 대형프랜차이즈 때문에 골목빵집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는데 대형프랜차이즈에 당당히 맞서 멋지게 성공하는 게 꿈”이라며 “앞으로도 웰빙시대에 맞게 많은 제품들을 개발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게트 과자점은 깔끔한 인테리어에 1층에는 흰찰쌀보리빵을 비롯해 유산균을 이용한 단팥빵과 야채빵, 오징어 먹물빵 등 많은 종류의 빵이 진열돼 있으며 2층에서는 커피와 팔빙수 등을 먹을 수 있어 만남의 장소로도 좋다.

/김예은기자(군산중앙중2)



▲이종길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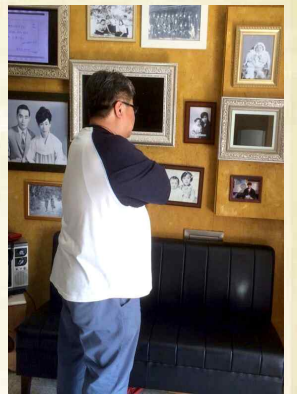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 ‘초원사진관’ 관광지 변신

한석규 심은하 주연의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1988년) 촬영지로 유명한 초원사진관이 새롭게 탈바꿈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여름처럼 성장해야 할 젊은 주인공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겨울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를 제작한 허진호 감독은 남녀 주인공의 감정을 섬세하게 나타냈다. 영화 속에 초원사진관이 담긴 장면이 있는데 이곳은 한석규와 심은하의 사랑이 시작된 장소와 동시에 주인공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곳이었다. 초원사진관의 모습은 감동을 주었던 영화처럼 벽에 걸린 여러 액자들은 현대 변한 사회와는 달리 오래전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원래 초원사진관은 차고였지만 군산시가 주민의 허락을 받아 사진관으로 개조했으며 사진관의 이름은 한석규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 사진관의 이름을 따 와서 지었다고 한다. 영화 촬영 후에는 이곳을 철거했다가 군산시에서 다시 복원했다. 초원사진관 안에 들어가니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고 옛날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

/박서린기자(군산영광여고1)



충북 음성 꽃동네 봉사체험

“봉사를 한 후 마음이 즐겁고 기쁨이 넘쳐”

작년 3월 18일부터 2박3일간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꽃동네에 다녀왔다. 동산중 2학년들이라면 집안에 일이생기거나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으면 필수 참석해야 되는 봉사다. 이날 친구들은 쓸데없이 그런 곳을 가냐며 매우 가기 싫어하고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계획을 짜던 아이들은 막상 꽃동네에 도착해 보니 공기가 맑고 상쾌하다며 매우 좋아했고, 꽃동네가 매우 넓어 버스를 타고 돌아다녀야 한다는 것을 듣고 매우 신기해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도착해서 강의가 시작되자 다시 지루해하며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언제 가냐는 등의 질문을 계속해냈다. 핸드폰을 건어갈 때는 폰 내기를 거부하며 내지 않고 숨기고 반항을 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아침 6시까지 준비를 마쳐야 된다는 말을 듣고 역시 오는 게 아니었다며 싫어했다. 이런 아이들이 마지막 날 구원의 집(노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원, 부랑인시설, 심신장애인요양원, 환희의 집(정신요양원), 천사의 집(입양기관), 인곡자애병원(의료기관)중에서 봉사하고 싶은 기관을 신청해 그곳에서 실제로 일을 할때는 매우 열심히 하며 즐거워했다.

나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 마침 그날이 목욕날이라 여학생들은 한쪽 방에 들어가서 할아버지들이 사용할 티슈를 자르고 남학생들은 복도청소와 할아버지들의 목욕을 도와드렸다.

티슈를 다 자른 여학생들은 이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미음을 떠서 먹여드리고, 이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자장밥을 비벼서 갖다드리는 급식봉사를 했다. 꽃동네는 다녀온 후에는 친구들은 한동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꽃동네에서 들었던 기상음악이 들리는 것 같다고 했다.

처음에는 정말 가기 싫어했던 아이들도 꽃동네에서 봉사를 하고 난 후에는 마음이 즐겁고 기쁨이 넘쳐 그곳을 좋아하게 됐으며 생각이 넓어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았다.

/이여진기자(군산동산중3)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새 인형극 ‘대한아~놀자’

3,000명 어린이 관람하는 등 큰 인기

‘대한아~ 놀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새로 각색한 인형극의 제목이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인형극은 그동안 3,000명 어린이들이 관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 각색한 인형극은 주인공 대한이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게서 많은 모욕을 느끼고 나라 없는 설움을 깨닫게 되면서 친구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심하며 성장하게 되는 내용이다.

인형극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우리나라의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인형극을 풀어나가고 있다.

또한 위안부에 끌려가는 모습,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모습 등에서는 이 인형극을 보던 아이들과 부모님들 모두 진지한 표정이다.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이 인형극을 보고 근대 역사를 알게 되고, 나라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동화기자(군산중2)



■벚꽃에 대한 오해와 진실

벚꽃의 여왕 왕벚나무, 한국이 원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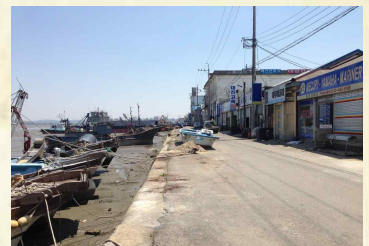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벚꽃은 일본의 국화(國花)이며 벚꽃의 원산지는 일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다. 일본은 정해진 나라꽃이 없으며 국화(菊花)는 일본 왕실을 대표하는 꽃이다. 그리고 벚꽃은 단지 일본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꽃이다.

특히 일본의 벚꽃 축제들과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 심어진 많은 벚꽃 나무들 때문에 벚꽃이 일본 국화라고 오해가 생긴 듯하다. 벚꽃은 장미과의 꽃으로 200여 종류가 있다. 그중에서도 벚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왕벚나무는 제주도가 원산지이다. 2001년 산림청 임업 연구원이 일본 왕벚나무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한라산에서 자생하고 있던 왕벚나무와 유전자가 같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1908년 4월 15일 프랑스 신부 타크가 한라산 북쪽 관음사 부근의 숲속에서 표본을 발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왕벚나무의 자생지임이 알려졌다.

세계적인 벚꽃 축제로 꼽을 수 있는 미국 워싱턴 DC의 벚꽃축제는 일본이 3000여 그루의 벚꽃나무를 선물로 준 것을 기념해 시작됐다고 한다. 하지만 1914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해오자 반일감정이 일어 벚나무를 배자는 여론이 들끓었을 때 이승만, 서재필 박사가 ‘벚꽃의 원산지는 제주도’라며 미국을 설득해 벚꽃나무가 한국의 나무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제주기 봉개동, 전남 해남 구림리 대둔산의 왕벚나무는 각각 천연기념물 159호, 156호, 173호로 우리 고유의 특산종이다.

/김예진기자(군산영광중3)



역사의 향기가 묻어있는 꾀보선창

조선시대 삼남의 농산물 서울로 보낸 선창

조선시대에 삼남의 농산물 등을 서울지방으로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꾀보선창이 이제는 텅빈 모습만 남아 분주했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꾀보선창은 조선조 숙종 27년에 만들어진 전라우도 군산진 지도에도 나타났듯이 죽성리(지금의 죽성동)의 서쪽 낮은 산 아래로 흐르는 강을 말한다.

당시에는 둔율, 송창, 개목에 서 있는 야산에서 모아진 물이 큰 내를 이루고 꾀보선창으로 흘렀다 한다.

꾀보선창이란 말은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금강의 줄기가 백마강쪽으로 뻗어나가다 살짝 옆으로 꾀져서 흐르고 있는데 이 모습이 꾀보(언청이)를 닮았고 그곳에 창이 있어 여기서 유래했다.

또한 옛날 이곳에 꾀보라는 힘센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곳 포구의 상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기에 외지에서 이곳을 들르게 되면 이 꾀보에게 지금으로 말해서 자릿세, 또는 텃세를 상납했다고 해 꾀보가 있는 선창이라서 꾀보선창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다.

꾀보선창의 본래 명칭은 죽성포구인데, 조선시대에 큰 대나무 숲이 있어 마을을 감싼 대나무 숲이 마치 성(城)과 같이 서쪽과 북쪽에서 오는 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려는 모습이었기에 그 마을의 이름을 대재 즉 죽성리(현 죽성동)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한다.

과거에는 꾀보선창이 해망정 기슭까지 작은 배가 즐비하게 머무르고 있었고 조선말까지 농산물 등을 서울지방으로 보내는 중요한 선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곳에서 당시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바로 꾀보선창이 복개공사를 거치면서 땅으로 매립돼 현재는 동부어판장 건물이 들어서면서 옛 모습을 감추었기 때문이다.

꾀보선창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지금은 공사를 해 예전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다”며 “하지만 식민지배를 받던 당시의 삶의 향기를 맡고 나라를 잃은 설움을 느낄 수는 있는 곳이다”고 말했다.

/신해은기자(전북외고1)